

하늘이 내린 큰 복



복 기원과 복 쌓기 | 밀접 접촉자가 감염되지 않은 이유 | 장짜민 사망에 사람들 쾌재 불러

제135기



목차



권두일문	3	복 기원과 복 쌓기
길성고조(吉星高照)	4	홍콩 여동생 가족의 전염병 극복 사례
	6	뜻밖에 반에서 일등이 되다
	7	3.5만 볼트 고압 감전에 의식 잃고 기적적으로 구조돼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8	희귀병에 시달리던 아기가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세상을 이롭게 하다	12	게임에서 벗어난 독일 젊은이
	16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거대한 파룬도형을 수놓다
평안을 얻는 길	18	밀집 접촉자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22	갓난아기를 압사시킨 마부와 말이 벼락을 맞다
아는 것이 복	24	불법 안건을 제지한 정직한 경찰
항간여론	26	장쩌민의 죽음에 사람들 쾌재 불러
	28	장쩌민이 팔아먹은 대량의 국토
	30	레이펑 사진과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31	설맞이 대련

복 기원과 복 쌓기

새해가 되면 가가호호 입구 문 위, 벽면, 문머리에 크고 작은 ‘복(福)’자를 붙여 새로운 한 해에 하늘이 큰 복을 내려 어려울 때 상서로움이 나타나고 건강장수하며 복운이 끝없기를 바란다.


한자의 내포는 박대정심(博大精深)하며 ‘복’자도 복을 기원하고 복 쌓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복(福)’의 좌변인 ‘시(示)’는 제사, 신명, 기원과 관련 있다. 복을 기원함은 선남선녀가 하늘을 경외하고 신을 모시는 것을 가리키며, 하늘의 보호와 복수(福壽)를 받고 재난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 ‘복(福)’의 우변은 신이 하사한 일구전(一口田, 양심의 터전)으로 마음에 한 뼨기 정도를 갖고 있으면 복이 강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고 늘 선한 이와 함께 한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고, 오직 덕(德)이 있는 사람이면 하늘은 그를 돕는다’고 했다.

고대 대의학자 손사막은 《복수론(福壽論)》에서 “복이 있는 자는 선(善)을 행해 쌓은 것이고, 화(禍)를 당한 자

란 품행이 좋지 않고 무덕하기에 화가 따른 것으로 덕이 없으면 복도 없다”고 했다. 옛사람의 가르침처럼 “화복은 정해진 문이 없으며 사람이 불러들일 뿐”이고, “화는 악에서 비롯되고 복은 덕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화복의 근원은 사람 마음에 있다.

역사를 돌아해보면 사람의 도덕성이 보편적으로 떨어지면 곧 대면적으로 가뭄, 홍수, 전염병, 지진, 전쟁 등 각종 재앙이 나타난다. 지금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천재인화가 끊임없는데 역시 현대인의 도덕관념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덕 표준에서 심하게 빗나갔기에 조성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진선인(真·善·忍)’ 대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져 사람을 진실과 선량, 관용으로 이끌어 본성을 되찾아 주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근심 없이 생활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법보(法宝)다! 하늘이 우리를 가엽게 여겨 내린 복에 감사하고 맺어진 선한 인연과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또, 양심을 지켜야 복이 끝없다. 새로운 한 해에 선량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온 집안이 행복하길 바란다! 

홍콩 여동생 가족의 전염병 극복 사례

글/ 샤오롄(小蓮, 헤이룽장)

2022년 3월 어느 날, 홍콩에 사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아프다며 매제와 함께 병원에 줄을 서 있다고 했다. 여동생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도 쉬어있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여동생 가족은 매제의 친구 가족과 함께 샵브샵브 가게에서 식사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코로나(우한폐렴)에 걸려 여동생에게 전화로 조심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여동생도 바이러스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던 것이다. 여동생은 주변에 가족끼리 감염되어 온 사람들이 많고 큰길에도 감염자들이 가득했으며 시신 자루도 보았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했다.

여동생과 내 어머니의 인연

여동생은 올해 41세다. 당시 그녀의 친어머니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생후 17일 된 그녀를 우리 어머니에게 입양하게 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는

우리가 가족이다. 10여 년 전, 그녀는 홍콩으로 시집가서 귀여운 다바오(大宝)와 얼바오(二宝) 두 아들을 낳았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고 어머니는 고혈압, 지방간 등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이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여동생은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삼퇴(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도 했다. 여동생은 홍콩에서는 파룬궁을 마음대로 수련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파룬궁이 좋으면 연마하시되, 반드시 안전에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했다.

‘9자진언(九字真言)’ 읊으니 증상이 사라지다

여동생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우리는 9자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많이 읊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우한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많은 감염자가 진심으로 9자진언을 염하고 나왔다고 알려줬다. 파룬궁은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인데 생명이 위태로울 때 진심으로 대법이 좋다고 믿고 9자진언을 염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여동생은 대법을 믿는다며 염하겠다고 했다.



이틀 후, 여동생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얼바오가 열과 기침이 나며 콧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검사해보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 후 첫째 아들 다바오와 매제도 열이 나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드러누웠다. 병원에 중환자가 딱 차서 그들은 집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동생 가족은 매일 성심성의로 9자진언을 읊었는데 서서히 모든 증상이 사라지면서 모두 나왔다.

이후 여동생의 시부모와 큰 시형네 가족 3명이 감염됐다. 여동생은 설리

(雪梨) 물을 끓여 시부모님과 큰 시형집으로 보냈고 9자진언도 알려줬다. 시어머니는 감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리 피하는데 너희들은 왔구나”라고 했고 여동생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라고 말했다.

하루는 여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내가 “지금은 괜찮아?”라고 묻자 그녀는 “다 나왔어!”라고 명랑하게 말했다. 여동생은 요 며칠 가족 4명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아이들은 조개 껍질을 줍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았다고 했다.

뜻밖에 반에서 일등이 되다

글/ 루이루이(蕊蕊, 헤이룽장)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적이 보통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와 이과 분과를 앞두고 이과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 문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문과를 배우려면 반드시 정치를 배워야 하는데 정치 과목은 대부분 당문화(党文化)다. (그리고 파룬궁을 모독하는 내용과 시험 문제들이 있음)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했던 나는 당문화를 매우 싫어했다. 하지만 문과를 배우면 성적이 잘 나오고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문과에 대한 선택을 다시 고려해보라고 교류해주셨다. 비록 이과가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여전히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과로 바꿨다.

고등학교 1학년 하반기, 전염병 때문에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수업이

끝났다. 나는 서둘러 공부했고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법공부와 연공을 했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며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 나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중독을 끊었다. 이전에는 시간 날 때마다 몰래 핸드폰에 정신이 팔렸는데, 지금은 마음에서 아예 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꾸준히 법을 배우고 연공하니 활력이 넘치고 생각이 집중돼 학습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어느덧 개학이 다가왔고 개학 시험에서 뜻밖에 반에서 5등을 했는데 정말 기뻐다. 그 후 시험에서 두 번 연속 반에서 1등을 한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새롭게 보았다.

기쁨에 앞서 정말 감동했다. 대법과 사부님께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셨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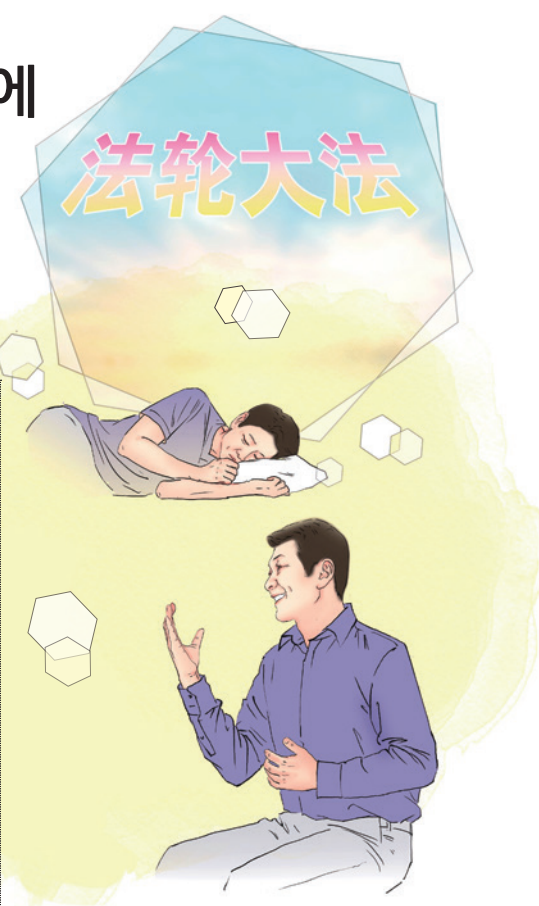
3.5만 볼트 고압 감전에 의식 잃고 기적으로 구조돼

[중국 투고] 나는 발전소 부임 수석 엔지니어로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기로 작동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일도 내 책임 범위다.


2020년 12월 30일 매우 춥고 바람도 거셴데 동료들을 이끌고 일했다. 그런데 작업 중 나는 3.5만 볼트 고압 전기에 감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순간 파룬(法輪)을 하나 보았고 큰 금빛 부처님도 보았다.

옆에서 지켜주던 동료는 내가 죽은 줄 알았지만 얼마나 지났는지 나는 깨어났다. 동료들은 놀라고도 기뻐하면서 “깨어났어! 정신이 들었어! 정말 놀랐네! 조상에서 큰 덕을 쌓았나 봐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



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읊으라고 하시며 또 9자진언 호신부(护身符)도 옷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하셨다.

나는 아직 파룬따파를 수련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대법을 수련하시는 것을 아주 지지한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날 구해주셨다! 

희귀병에 시달리던 아기가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글/ 샤오윈(肖韵, 중국)

2020년 3월 말, 외조카 가족이 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조용하던 우리 세 자매의 생활에 파란이 일어났다. 당시 7개월 된 조카 아들은 피부병과 흡사한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몸에 붉은 뾰루지가 자랐지만, 어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에 갈수록 심해지더니 아이는 가려워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계속 울었다.

온몸의 부스럼으로 얼굴이 엉망 돼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온몸에 부스럼이 자랐는데 머리, 얼굴, 손, 발, 배, 등뿐만이 아니라 생식기에도 자랐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이 부스럼에서 떨어진 물이 어디로 흐르면 그곳에 또 부스럼이 가득 생겼다. 그 후 두꺼운 딱지가 앉았고 그것이 층층 떨어

지면 다시 한 층 한 층 딱지가 생겼다. 딱지가 두꺼운 곳은 갈라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왔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조카와 조카사위는 출근도 못하고 우리 언니도 옆에서 돌봐줬는데 날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후에 언니와 조카, 조카사위의 팔에도 이런 부스럼이 한두 개 났으나 퍼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 부스럼의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아이가 말 못 할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니는 부스럼이 매우 가려운 데다 특별히 아파서 마치 바늘로 깊이 찌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바늘 하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만 개 바늘로 찌르듯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다.

아이가 가려운 곳을 긁으면 피부를 할퀴까 봐 어른 둘이 밤낮으로 한쪽 손을 꼭 잡아야 했고 아이는 마치 형벌을



온몸에 부스럼이 가득 난 아이.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고 기적처럼 회복된 아이.

받는 것처럼 내내 울기만 했다.

조카 가족이 고향에 돌아오자 모두 깜짝 놀랐는데 누구도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얼굴이 엉망이었고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힘들고 무기력한 아이의 눈빛, 가슴을 후벼 파는 울음소리, 힘껏 발버둥 치고 고개를 저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기가 고통스러워 머리를 세게 부딪치다

9개월이 되자 상황이 더 심해져 어른들이 밤낮 아기를 안고 자야 했다. 잘 때 항상 반듯이 눕혀야 했고 어른 둘이 양쪽에 누워 아이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을 꼭 잡아야 했다. 가끔 밤 심해 손을 잡지 않으면 아이는 머리카락을 긁어 피범벅에 노란 진물까지 흘러나왔다. 젖을 먹일 때도 반듯이 눕힌 후 양쪽에서 어른 한 명이 아이 손을 꼭 잡고 긁지 못하게 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무슨 물건이든 닿기만 하면 정신없이 머리로 힘껏 들이받았다. 어른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 머리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이는 눈이 뒤집히고 검은 눈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우 무서웠고 이런 상황이 몇 번 발생했다.

정상적인 아이는 9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먹고 앉거나 기어 다닐 수 있었지만 조카의 아이는 기어 다니지 못했고 모유 외 다른 음식은 먹지 못했다.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부스럼이 더 심해졌다. 아이가 밤낮 보채며 울었기에 조카 부부는 여러 방면의 스트레스로 힘겨웠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도 찾아와 휴식에 방해되니 아이가 보채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의사도 속수무책

2020년 5월, 조카는 유명한 중의사에게 3천 위안어치 약을 샀다. 이 중의사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고 가문 몇 대 째 모두 명의였다. 처방 중에 분말로 된 약에 기름 같은 액체를 섞었는데 이 약을 바른 후

아이가 기침하기 시작했다. 또 민들레 물에 설탕을 넣어 2주간 먹이라고 했는데 이틀을 먹이니 설사가 심해지고 녹색 변을 보았다. 그래서 이 약도 사용할 수 없었다.

아기의 할머니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유 알레르기에 영양 과잉이라면서 아이에게 네오케이트 분유(알레르기용 특수 분유)를 먹이라고 했다. 조카는 지시대로 이 분유를 먹였으나 아이는 아예 먹으려 하지 않았다. 강제로 주입했더니 토하며 설사했는데 이후에는 뭘 먹어도 토했고, 모유도 거부해 이틀간 아무것도 먹이지 못했다. 어른들은 더 안달이 났고 더는 방법이 없자 다시 모유를 먹였다.

한 달 뒤 조카사위는 한 의사에게서 먹는 약과 외용약을 사 왔다. 하지만 약을 바르고 이틀 뒤에 온몸에 부스럼

아이를 괴롭혔던 피부병 증상이 완전히 나았고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다. 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는데 살결이 희고 포동포동했다.

이 더 심하게 퍼지고 진물도 더 많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조카사위도 막막해하며 더는 그 약을 쓰지 않겠다며 모두 버렸다. 그 후 조카사위는 어쩔 수 없어 도움을 구하려고 몇몇 중의사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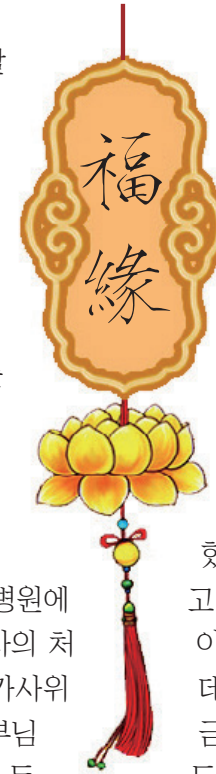
방법이 없었고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매번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병원과 진료소를 찾았으나 계속 실망만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적이 일어나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이런 상황에서 조카는 무너지지 않고 대법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의 처방도 역효과를 일으키자 조카사위도 조카가 아이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주는 데 동의했다.

조카는 밤낮 쉬지 않고 아이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줬다. 또 대법 사부님의 시사 ‘홍음’도 순서에 따라 한 수씩 아이에게 외워줬다.

아이가 끊임없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 어쩔 방법이 없을 때는 큰 소리로 ‘홍음’의 ‘마음고생’을 외웠고 이러면 아이도 차츰 울음을 멈췄다. 가끔은 효과가 아주 뚜렷해 법만 들으면 조용해졌다. 수련하지 않는 조카사위도 ‘홍음’의 ‘마음고생’을 외울 수 있었다. 아



이가 울고불고할 때는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며 사부님의 시를 외웠다. 상황이 몹시 어려웠지만 파룬따파는 초범적인 위력이 있기에 아이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 굳게 믿었다.

끝내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는 날마다 호전됐고 11개월이 되자 먹을 수도, 잘 수도 있었다. 보름 뒤에는 아이를 괴롭혔던 피부병 증상이 완전히 나았고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다. 아이의 진짜 모습이 끝내 드러났는데 살결이 희고 포동포동했다. 지금 아이는 발육이 아주 좋으며 모든 것이 정상이다. 정말 신기했다!

“우리 가족은 대법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법을 소중히 여기고, 한마음으로 선(善)을 지향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진상과 희망을 알리는 것으로 사부님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아이 병세 전후의 사진을 함께 두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시길 바란다.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9자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읊어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

게임에서 벗어난 독일 젊은이

글/ 명후이 기자 웨리(雪梨)

청소년들의 전자게임은 이미 많은 학부모의 골칫거리이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도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직업과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다음은 한 독일 젊은이가 게임을 끊은 경험이다.

노아는 독일 글래드벡에서 태어났다. 노아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어린 시절 노아는 일요일마다 양복을 입고 어른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그는 스스로 방을 치우고 먼지를 닦았는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야만 만족감을 느꼈다.

노아는 열다섯 살 때 친한 친구에게서 처음으로 게임을 배웠는데 그 이후 게임에 빠져들어 점점 더 많이 놀았고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게임이 좋지 않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노아

다는 것을 알았지만 참지 못하고 친구가 부르면 다시 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심부름을 시키면 그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라운드를 하고 있어요”라고 짜증을 냈다. 철들고 예의 바르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다.

노아는 처음에는 게임을 할지 안 할지 고민했으나 결국 게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온종일 게임을 해 눈이 멀절게 부어오르고, 두 볼이 꺼졌으며, 성격도 급해졌고, 무엇이든 관심이 없

고 냉담해진 그를 본 어머니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했다.

노아는 말했다. “게임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하겠다고 다짐해도 친구가 부르면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이 눈앞에 다가왔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노아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대학에 가려 하니 성적이 형편없었고 되는대로 취직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 친구들을 피해 이 작은 도시를 멀리 떠나고 싶었다.

노아는 말했다. “연방군 정예부대 소속이었던 외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12km씩 달리며 몸을 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탄복했어요. 그리고 군인인 형도 가끔 군 생활을 알려줬어요. 저는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매일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삶을 동경해요. 군인은 명예와 책임감이 넘치므로 가능하다면 직업군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2년간 군 복무를 한 뒤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어쨌든 게임과 친구들을 멀리해야 했기에 막 열여

덟 살이 된 그는 부대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군에서의 뜻밖의 수확

규칙적이고 엄격한 군 생활로 신병들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하루하루 목표였다. “우리는 매일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낮에는 흙탕물 모래 속에서 뒹굴며 사격, 허들 뛰기 등을 배웠는데 매일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노아는 이를 악물고 모든 훈련을 계속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노아가 한 젊은 군인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군인이 “좀 있다가 가서 가부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노아는 “가부좌라니요?”라고 물었다. “저는 파룬궁이라는 공법을 연마하는데 정말 좋아요.” 노아는 흥미가 일었다. 여섯 살 때 공수도(空手道)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덟 살 때 분재(盆裁)를 배웠으며 중국 무술 영화에 관심 많은 아시아 문화 팬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질문을 했고 진선인(真·善·忍) 원칙과 파룬궁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파룬궁이 평소 알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한 그는 매우 흥분했다. 그 병사는 또 파룬궁을 수련하

려면,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남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아는 문득 ‘모든 정교(正敎)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 공법은 각 교파를 통솔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한 줄기 햇빛이 문 뒤에서 비추는 것 같았다.

친구가 매일 공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고 수련서 《전법륜(轉法輪)》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 책을 노아가 간직하게 됐다. 노아는 파룬따파를 배우면서 활력이 넘치고 인내력도 증진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군 복무 후 다시 게임에 빠지다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뒤셀도르프 학교에 다닐 때 노아는 고향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어린 시절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옛 친구와 재회한 흥분 속에서 그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고급 컴퓨터를 구입해 친한 친구와 ‘우정’을 유지했다. 곧 노아는 다시 게임에 빠졌다. 하지만 노아는 즐겁지 않았다. “게임을 한 뒤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는 것은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점점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

그동안 노아는 파룬궁을 연마하며 게임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났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매일 보는 《전법륜》은 그에게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 일깨워줬다.

한번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 뒤 갑자기 멍한 기분이 들면서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보며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멍청해? 왜 생명을 낭비하고 있지?”라고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플러그를 뽑았으며 과감히 모든 기기를 팔았다.


게임을 끊은 후 노아의 삶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두 시간씩 연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법륜》을 읽고 또 법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매일 에너지에 감싸였고 바람에 떠밀려 걷는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노아는 어릴 적 예의 있는 모습을 되찾았고 책임감을 갖게 됐다.

그는 대법 사부님께서 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노아는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공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자연스럽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노아는 분명히 두뇌 용량이 커져 많은 지식을 저장할 수 있고 두뇌도 유연해졌음을 느꼈다. 직업 고등학교 과정을 쉽게 마친 노아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다른 고객을 만날 수 있어 하는 일이 매우 즐거웠다. 노아는 일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1억에 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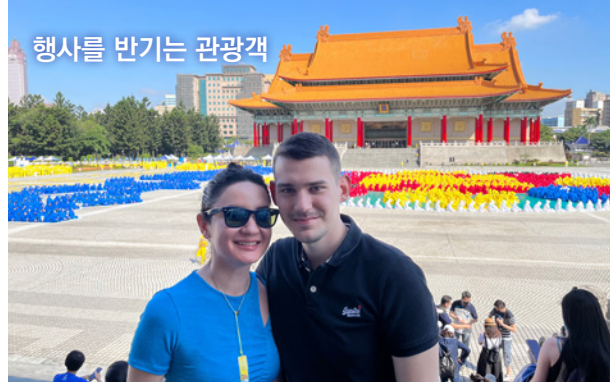
《전법륜(轉法輪)》은 파룬궁의 주요 저서이며 백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여러 인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매일 필독하는 경서다. 《전법륜》은 예로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했으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우주, 인생의 미혹을 풀어줬고,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심신에서 수해를 입고 도덕성이 향상됐다.

1996년(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 《전법륜》은 여러 차례 《베이징청년보》, 《베이징만보》, 《베이징일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2004년 12월 《전법륜》은 호주 방송국 경선에서 호주에서 가장 환영받는 100권의 서적 순위 중 제14위를 차지했다. 가장 환영받는 서적 중 유일하게 동양에서 온 불법(佛法) 수련 서적이었다.

오늘날 《전법륜》은 40여 종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에서 공개 출판 발행되고 있으며 역사상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 서책이다.

2022년 11월 12일 오전, 대만 각지에서 모인 5천 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생들이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진행한 성대한 행사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전파 30주년'과 눈부신 파룬 도형을 새겼다.



행사 후의 대형 연공 장면



현장에서 파룬궁 진상 게시판을 읽고 있는 관광객

밀접 접촉자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아직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밀접 접촉자’라는 말을 들으면 모두 두려워 피하기 바쁘다. 누군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가족, 동료 등 밀접 접촉자는 1차 격리 대상이 되고, 심지어 도시까지 봉쇄하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변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아래 밀접 접촉자들이 왜 무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남편이 확진됐지만 아내는 음성

2022년 1월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뉴욕은 매일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한때 뉴욕 곳곳마다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을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염돼 온 집안이 감염됐고, 한 집 한 집이 바이러스에 공격당했다.

뉴욕 플라싱의 한 쇼핑몰에서 일하는 류루시(刘露西)와 남편은 새해 전

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다. 65세 되는 류 씨는 심장병에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고, 게다가 백신도 맞지 않아 코로나에 감염됐을까 봐 걱정했다.

류 씨가 동료 헬렌에게 걱정을 얘기하자 파룬궁을 수련하는 헬렌은 그녀를 위로했다. “무서워 마세요.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읊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류 씨는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하루 뒤 그녀는 헬렌에게 “정말 그 말을 읊었더니 이튿날에 열이 내리고 나왔어요!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 씨의 남편은 상태가 심각

해져 그녀는 가정의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을 뉴욕 퀸스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전에 그녀는 집에서 남편을 열흘간 돌봤는데 남편은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류 씨는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제가 절대 감염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의료진은 그녀에게 얼른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사 결과 그녀는 음성이어서 딸도 깜짝 놀랐다. “엄마는 정말 운이 좋으세요. 아빠보다 몸이 약한데다 열흘간 아빠를 돌봐준 밀접 접촉자라 무조건 걸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류 씨는 기뻐하며 헬렌에게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파룬궁 덕을 봤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류 씨의 생각도 바뀌었다. “제가 처음 이 가게에 와 일할 때 파룬궁을 수련하는 동료가 진상을 알리면 듣기 싫어했고 논쟁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직장의 ‘열성분자’, 공청단 총지부 서기, 선진 일꾼이었으며, 남편의 입당 신청서도 모두 제가 도와 써줬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살면서 공산당에게 세뇌돼 관념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동료와 자주 만나면서 차츰 생각을 바꾸게 됐고, 9자진언(九字真言)을 진심으로 읊으면서 나타난 신기한 보호도 몸소 느끼게 됐다.

같이 먹고 사는 동료가 전염병에 걸렸지만 그는 무사했다

대만 파룬궁 수련생 량충위(梁琮予)의 남편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전염병이 매우 심각했다. 량 씨는 날마다 남편과 통화하면서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알려줬다. 무신론을 믿는 이공계 출신 남편은 그녀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배척했다.

당시 그녀 남편의 기숙사 룸메이트



가 심하게 기침했고 거의 한 달간 낫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막 퇴근하고 아내와 전화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급히 그에게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라고 통지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순간 “왜지? 혹시 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가? 아니면 왜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하지?”라고 말했다. 랑 씨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워요”라고 말했다고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흔쾌히 파룬궁에 대해 승낙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태도가 바뀐 것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그의 룸메이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같은 부서, 같은 기숙사였고, 에어컨과 화장실을 함께 쓰고, 한 달에 4일 휴가를 제외하고 거의 24시간을 같이 있었기에 그도 격리돼야 했다. 하지만 2주 간격으로 세 차례 연속 검사를 받았지만 그는 모두 음성이었다.

아슬아슬하게 위험에서 벗어난 후 랑 씨의 남편은 파룬따파에 대해 진심으로 탄복했고 위기의 순간에 대법이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그는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가했고 보서(宝书) 《전법

륜》을 읽으면서 파룬따파가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며 반본귀진(返本归真)을 가르치는 고덕대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모두 무사하다

우한에 사는 한 파룬궁 수련생은 ‘우한폐렴이 우한을 극심한 고통에 몰아넣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막내딸과 사위는 모두 우한 대형병원 간호사이고, 게다가 사위는 응급실 수간호사다. 전염병 기간에 날마다 각종 환자와 접촉했고 병원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돼 그들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설날 일주일 전인 2020년 1월 18일, 그들은 미리 집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식사했다. 막내 사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진상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꼭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읊을 것을 당부했다. 큰 재난에 닥쳤을 때 이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진언(真言)이라고 알려주자 그 둘은 모두 귀담아들었다. 게다가 그들이 일찌감치 ‘삼퇴’(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까지 했기에 전염병이 가장 엄중하던 시

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했지만 둘 다 감염되지 않았다. 우한 어느 병원의 의사인 큰딸도 코로나 기간에 한 달간 발열환자 전문 진료를 하면서 직접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진료했지만 무사했다.

연구보고서 “9자진언은 특효가 있다”

이런 밀접 접촉자들은 왜 ‘9자진언’을 외우고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스위스 바이오테크 회사(SunRegen Healthcare AG) 수석 연구원 둥위홍(董宇红)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계 6개국, 6개 민족 36명에 대한 ‘9자진언’ 사례를 연구했다. 결과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 개선율이 100%, 특히 중증 환자 11명 중 10명이 완치되고 1명이 호전됐음을 발견했다.

둥 박사는 ‘9자진언’ 효과에 대해 놀랐고 동시에 현대과학, 의학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체에서 진정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인체 자체의 면역력에 의존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성명쌍수(性命双修) 공법 파룬따파는 불가(佛家)의 고덕대법으로 강력한 긍정적 에

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9자진언’을 진심으로 염하면 강력한 에너지장이 율는 이에게 전달돼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항바이러스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 줄 수 있다. 이른바 ‘황제내경’에서 말한 ‘정기(正气)가 안에 존재하면 사기(邪氣)가 간섭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4억 명 넘는 사람들이 삼퇴해 평안을 얻다

그 외 지금의 천상변화에서 무사하려면 ‘삼퇴’가 관건이다. 중국공산당(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 토지개혁, 대기근, 문화대혁명, 6·4 학생탄압 등 역대 운동을 거치면서 8천만 명이 나 되는 중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1999년 7월부터 중공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가혹한 박해를 시작했고 무려 23년간 지속하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악행은 하늘의 이치가 용납하지 않기에 중공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서둘러 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이 최선의 자구책으로, 2022년 12월 21일까지 탈퇴 인원은 4억 625만 명을 돌파했다.(중국인 외의 외국인도 ENDCCP.COM 홈페이지를 방문해 중국공산당 종식 지지 서명을 할 수 있다.)

갓난아기를 압사시킨 마부와 말이 벼락을 맞다

[중국 투고] 이 이야기는 동북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실화다. 60년 전, 한 마부가 말 세 필이 끄는 마차를 몰고 다그쳐 가다가 이불에 싸여 있는 갓난아기가 길가에 놓인 것을 보았다. 이불을 열어보니 아기 품에 편지와 300위안(한화 약 5만 원)이 있었다. 아기 엄마가 편지와 돈을 남겨 놓고 누군가가 아이를 입양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인성의 최저선을 벗어난 이 마부는 갓난아기를 싣은 새 이불과 300위안만 챙기고, 핏덩어리 아기를 차도 도랑에 놓고 말로 밟아 압사시켰다. 말들은 처음에는 마부에게 협조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때려도 아기에게 가지 않고 심지어 옆으로 비켜갔다. 그러나 마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몰아세웠고 말들은 결국 아기를 밟아 압사시켰다.

마부는 돈과 물건을 챙겨 계속 길을 다그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에 점차 구름이 하나 나타나더니 마부의 머리 위를 따라다녔다. 마차가 지금의 하대(哈大) 도로, 내 고향에서 멀

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날이 저물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였는데 곧 벼락이 내리쳐 마부와 말 세 필이 모두 즉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다시 개었다.

이 모든 일은 산비탈에서 양을 방목하던 사람이 아주 분명히 목격했다. 인근 주민들이 모두 뇌신(雷神)에게 벼락 맞아 죽은 사람과 말을 보러 나왔는데 이들은 걸은 상하지 않고 내장만 상한 것을 발견했다. 마부는 300위안을 탐냈고, 말 세 마리는 마부의 핍박을 덜 받기 위해 무고한 아기를 함께 살해했다. 이것은 양심 없는 행위로 천리가 용서할 수 없다! 말들은 핍박에 못 이겨 나쁜 짓을 저질러서 비록 피동적이었지만 결국 함께 가담했으니 똑같이 벼락을 맞았다.


중공의 수단은 이 이야기 속 마부와 같다. 중공은 역대 정치운동에서 일부 사람을 탄압과 박해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핍박해 의사표시를 하거



명나라 작품 《뇌공상(雷神像)》 일부(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나 박해에 가담하게 했다.

어느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서 탈퇴)’ 자원봉사자는 공산당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기에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므로 ‘천멸중공(天滅中共)’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산당을 멀리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공산당이고, 다른 사람은 명령을 집행했을 뿐 피동적으로 가담했기에 함께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가 이 실화를 들려줬더니 많은 사람이 단번에 이해하고 급히 삼퇴했다고 한다. 

불법 안건을 제지한 정직한 경찰

[라오닝 투고] ○○시 공안국에 근무하는 내 친척 류 씨는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을 때 과급 간부였다. 사람됨이 충직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선악을 분간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말, 내린 결정은 상사의 인정과 동료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파룬궁 수련생들이 공안에 납치되면 그는 관대하게 대하거나 풀어주면서 결코 박해에 가담하지 않았다.

한번은 한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내린 판결 문건을 공안국에서 시 공안국으로 전달했는데, 이 수련생을 노동교양소(노동수용소)로 보내려 한다는 내용이였다. 류 씨는 사건을 파악한 뒤 말했다. “이 문건은 범죄 사례가 없고, 이 사람도 문건에 쓴 사건들이 ‘날조, 모함’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지 잘못 처리해서는 안 되므로 이 사람을 노동교양소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조사를 거쳐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삼퇴’ 물결이 일고 있을 때 나는 그의 부모님 댁에서 그를 만나 왜 ‘삼퇴’를 해야 하는지 설명했는데 그는 두말 없이 중공 조직 탈퇴에 동의했다. 그의 정의로운 선택은 앞날과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았다. 이후 그는 국급 간부로 승진됐고 게다가 큰 교통사고에서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났다.

사고 당시 그는 외지로 사건을 처리하러 갔는데, 눈이 내려서 여정이 매우 힘들었다. 시내로 들어서자 그의 차가 ‘핑’ 소리와 함께 질주하던 대형 화물차에 부딪혀 10여m나 밀려 나갔다. 차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피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그는 어느 부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

법을 잘 대하면 하늘이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네요!”

대법을 믿는 그의 아이도 ‘삼퇴’하고 순조롭게 명문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마음에 드는 직장에 배치돼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이였다

1999년 이후 중국의 100명 이상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법정에서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수천 건의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했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파룬궁은 중국 본토에서 줄곧 합법이였다. 첫째, 중국 헌법 36조는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일체의 법률,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 공안부 문서(공통자[2000] 39호, 공통자[2005] 39호)에 따르면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가 공동으로 인정하고 명확히 정한 사교(邪教) 조직은 총 14개인데 거기에는 파룬궁이 없다.(누구나 휴대폰으로 검색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문서는 1999년 파룬궁 서적에 대한 두 가지 금지령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파룬궁 서적을 인쇄, 보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모함당한 수련생이 법정에서 법관에게 ‘파룬궁은 X교’(주: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라는 법률문서를 제시하고 어느 법을 어겼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법관을 포함한 법정의 모든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완전히 위헌이기 때문이다. 진상을 듣지 않고 끝까지 중공을 따라 박해에 가담한 사람은 결국 법의 제재와 하늘의 인과응보를 받을 것이다.

장쩌민의 죽음에 사람들 쾌재 불러

글/ 위신(于新, 라오닝)



2022년 11월 30일, 중국 언론이 ‘장쩌민 사망’을 공식 인정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불렀다. 자동차 동아리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11월 29일 저녁 폭죽을 터뜨려 장쩌민의 죽음을 축하했다고 말했다. 거리의 시민들도 서로 “장하마(江蛤蟆: 장두꺼비)가 죽었어!”라고 말했다.

사실 며칠 전 현지(라오닝) 정부에서 일하는 직원이 “장쩌민이 죽었어요”라고 말했다.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은 의료 기기와 약물로 숨만 붙어 있었고 몇 년간 죽지도 살지도 못했는지 중공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속이고 감춰도 언젠가는 속일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 시의 한 건축설계소 사장은 평소 장쩌민을 매우 혐오했다. 11월 30일 그는 특별히 ‘장쩌민 사망’ 소식을 직장 위챗 채팅방에 올려 널리 알렸다.

중공이 장쩌민의 사망 소식을 발표하기 이틀 전, 우리 시의 한 수련생이 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수련생이 그에게 2023년 ‘명혜달력’ 한 권을 줬다. 이 남성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 다른 명혜 특간 ‘장쩌민의 3대 죄악’을 요구하며 “장쩌민이 죽었어요!”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이틀 뒤 중공이 장쩌민의 죽음을 공개했다.

11월 중순, 나는 버스에서 우리 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가는 길이 멀기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던 시기에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파룬궁을 비방하는 원고를 중계방송하며 대대적으로 비판하게 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장

쩌민이 일으킨 이 운동에 모두 연루됐어요. 몇 년 전 우리는 해외연수로 무사히 북한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발급받을 때 우리가 모두 당원이라는 것이 발견돼 결국 비자가 거절됐고 미국에 가지 못했어요. 이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고 국제사회의 민심을 자극한 것과 관련 있어요.” “방송국 상황도 점점 안 좋아져서 해마다 나빠지다가 작년에는 난방비까지 문제가 됐어요.” 나는 그에게 해외 탈당 사이트에서 탈당해 앞길을 남기는 당원들이 많다고 알려줬다.

이 남자는 자신의 증명서를 꺼내 이름을 밝히며 “이런 신분으로 탈당이 되겠어요?”라고 물었다. 나는 “탈당 이름은 당신의 성(姓)에 가명만 붙여도 됩니다. 오늘 날짜와 가명을 기억하시면 탈당 사이트에서 전자탈당 증명서

를 찾을 수 있습니다”고 알려줬다. 그는 기뻐하며 탈당하는 데 동의했고 ‘장쩌민의 3대 죄악’ 특간을 손에 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며 집에 가서 잘 보겠다고 했다.

한 의대 노교수는 말했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너무 지나치게 대했습니다. 그는 파룬궁이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파룬궁은 매우 좋습니다! 파룬궁처럼 정의롭다면 중국 사회는 지금 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쩌민은 중국인을 해쳤습니다. 장쩌민은 최근 몇 년간 죽기만을 기다렸고 죽어서 더러운 이름을 천추에 남겼습니다!”

장쩌민은 ‘6·4(천안문 학생운동) 탄압의 최대 수혜자이자 파룬궁 박해의 원흉으로 23년 넘게 이어진 박해로 수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2015년에 2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실명으로 고소했으며, 국제적으로 장쩌민은 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반(反)인류죄’, ‘집단학살죄’, ‘고문죄’로 고소당했다. 지금 장쩌민이 죽자 많은 사람이 장쩌민이 마침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을 기뻐했으며, 또 많은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다소 아쉬워했다.

장쩌민이 팔아먹은 대량의 국토

중공이 장쩌민이 죽은 소식을 공포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10월 30일, 밉후이왕(www.minghui.org)은 나라를 판 매국노, 모든 부패세력의 배후, 파룬궁 박해를 '장쩌민의 3대 죄악'으로 평가한 《진상》 특간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간략히 장쩌민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실을 서술하겠다.

장쩌민은 임기 기간 대량의 국토를 팔아먹었다. 러시아에 판 영토 면적만 40개 대만 면적과 맞먹으며 중국 동북 3성 총면적과 같다.

1999년과 2001년에 장쩌민은 옌친, 푸틴과 일련의 중·러 국경 의정서에 서명해 10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팔았고, 블라디보스토크 및 인접 극동지역 700평방킬로미터에 가까운 토지는 영원히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장쩌민은 또 두만강 출구를 러시아에 넘겨 중국 동북에서 태평양으로 통하는 출구를 봉쇄했다. 장쩌민은 매국

행위 후 대내적으로 소식을 봉쇄했지만 몇 년 후 러시아에서 관련 조약을 발표하자 중국도 알게 됐다.

장쩌민의 '의정서'는 근대 중화민국 이래 역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중·러 불평등 조약 '아이훈조약', '베이징조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쩌민은 협정 체결 후 군사위 주석 자격으로 중국 국경경비대에게 100km를 더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장쩌민은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도 조약을 맺어 분쟁지역 영토를 거의 포기했다.

장쩌민은 1996년 필리핀 방문 때 자발적으로 난사군도 주권 쟁의를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다.

1996년 11월 말, 장쩌민은 인도를 방문해 맥마흔 선을 인정하고 히말라야 남쪽 기슭의 비옥한 9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포기했다.

1999년 12월 30일 장쩌민은 '중국과 베트남의 육지경계조약'을 비준해 수천 중국 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키던 윈난 라오산(老山), 광시 파카산(法卡山)을 베트남으로 귀속시켰다.

장쩌민처럼 외국에 자국 영토를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지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福

책 《장쩌민 그 사람》을 읽고

난세의 추한 매국노
포악한 탐욕가, 아부로 권력 장악했다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소인배
무간지옥 떨어질 귀신, 따르는 자도 함께 망하리라!



1999년 12월 9일 장쩌민과 옌친은 베이징에서 매국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당시 장쩌민이 애교를 떠는 추한 모습.



레이펑 사진과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글/ 진야오(金尧)

예전에 레이펑(雷锋, 중공이 좋은 사람의 본보기로 만들어낸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깊은 인상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진이었다. 어렸을 때 학우들 중에 사진이 가장 많은 건 나로서 10여 장이나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한 장도 없었다. 부모님이 지식이 있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때 많은 사람은 밥 먹기도 힘든데 사진 찍을 돈을 말할 나위도 없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레이펑은 사진이 많았다. 원래 그가 '좋은 일'을 할 때 사진작가가 그를 따라다녔고, 연극 줄거리 필요에 따라 보충 촬영했기에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레이펑이 손전등을 켜고 책을 보는 사진이 있는데 햇빛 그림자까지 찍혀 있다.

수십 년간 중공에 속은 것은 중국인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중공이 체계적으로 세뇌시키며 주입한



맛이다. 안타깝게도 '기만당한 한 세대는 죽었고, 또 그 사람 다음 한 세대는 지금도 중공에 속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며 또 중화민족의 크나큰 불행이다.'[《9평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에서 발췌] 오늘날 사람들은 '천안문 분신자살'이 중공이 연출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중공의 선전에 따르면 '천안문 분신자살'은 돌발 사건이다. 하지만 CCTV 영상으로 보면 사진작가가 원경, 근경, 클로즈업으로 드라마처럼 촬영했고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천안문 광장에서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 경찰을 본 적이 없는데 분신 직후 1분 만에 현장 경찰이 소화기 20여 개를 꺼냈다. 또 화상을 입은 아이가 기관지 절개 수술을 한 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의학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다. 梅



설맞이 대련

설날이면 집집마다 대련을 붙인다. 여기에서 춘련 3종을 선사드리니 선량한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하늘 공경하고 신 믿는 이에게 길조 드리우네(敬天信神人祥瑞)

덕 쌓고 선행하면 복이 깃드려(重德行善福临门)

횡서: 신년대길(新年大吉)

겨울 추위 물러가니 봄기운 가득하구나(冬寒散尽春意暖)

빙설 녹으니 기이한 꽃 피어나네(冰雪消融奇花开)

횡서: 만상갱신(万象更新)

대법을 선하게 대하면 신불께서 보우하고(善待大法神佛保佑)

진상에 명백해지면 평안과 길상이 찾아오네(明白真相平安吉祥)

횡서: 천사홍복(天賜洪福)





2022년 11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추수감사절 대형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파룬궁(法輪功) 행렬이 단상을 지날 때 사회자는 “연꽃과 생화, 흰 구름으로 장식된 저 꽃차를 보세요!” “이들은 정말 평화로운 단체입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올해로 19년째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필요하다’, ‘파룬따파는 좋다’ 등 중국어와 영어 현수막을 들었다. 맨 앞은 선두깃발 파트, 그다음은 파룬궁 공법 시연 파트,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장식 꽃차들이 뒤를 이었다. 파룬궁의 ‘보도(普度)’, ‘제세(濟世)’ 음악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두 번째로 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수천 관중이 몰렸고 TV와 인터넷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기

PC 버전 다운로드 링크: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다운로드 링크: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 Edge, Chrome 또는 Firefox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